

가수 유승준, 논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대법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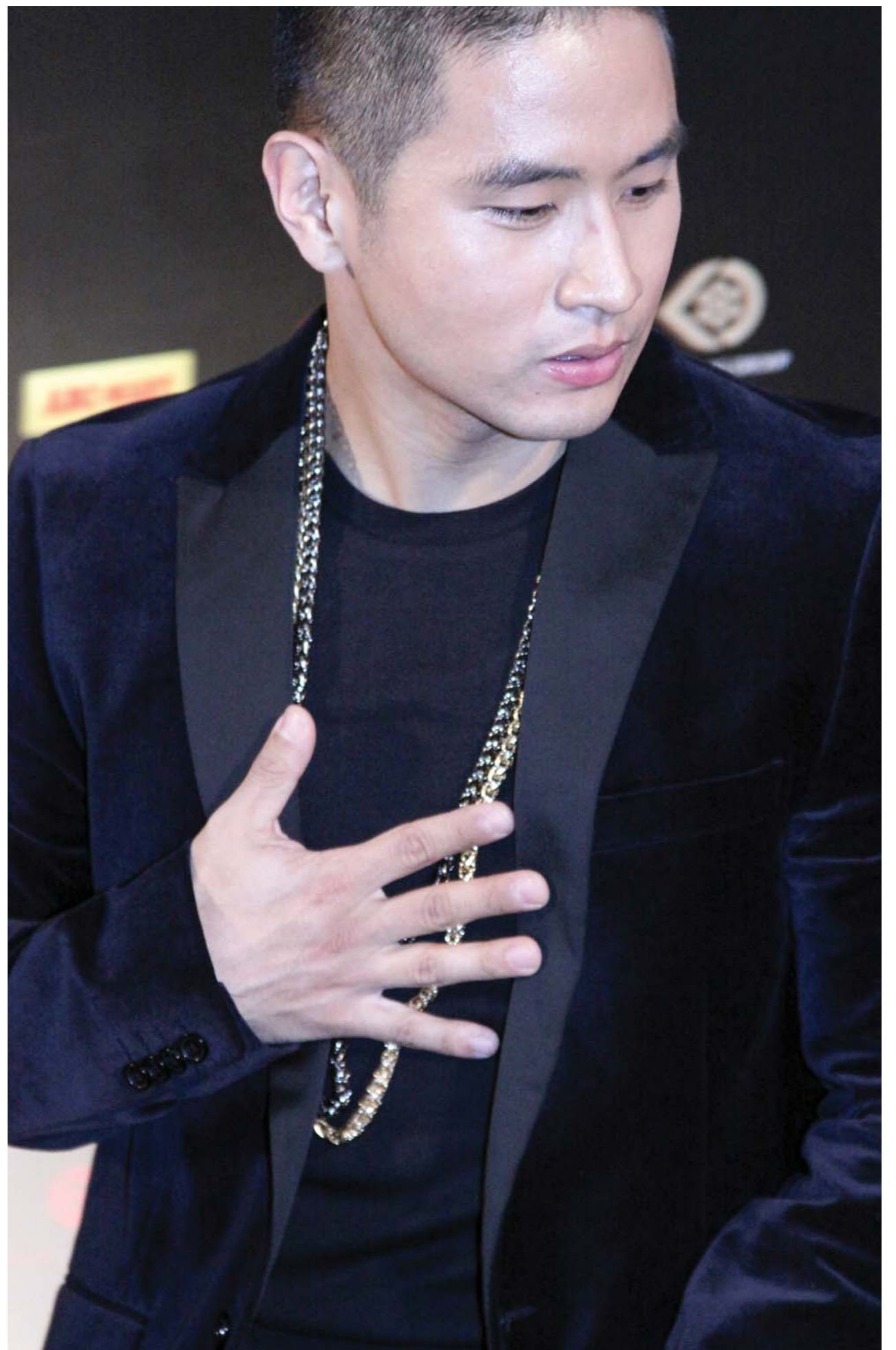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취소해야 할지 여부가 다음주 최종 가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중(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일을 연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

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

2002년 입국제한 조치
2015년 취소소송 제기
1·2심 "거부 정당해"
대법, 11일 상고심 선고

일은 연가해 국외여행 허가 받는다"며 "이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 확보 등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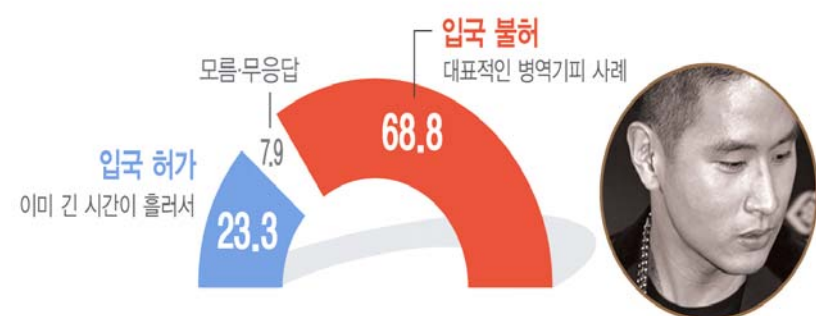


‘병역기피’ 유승준 입국 반대 69% vs 찬성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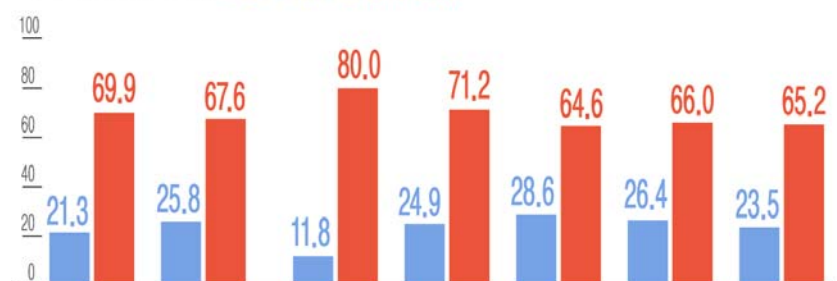
4년전보다↑...성별·지역·연령대·이념성향·정당지지층 대부분 불허 높아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여론

병역기피 위해 한국국적 포기 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상대로 낸 소송이 11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음



지지 정당별 연령별



7월5일 / 전국 만 19세 이상 / 4.6% 응답률(총 응답 501명) /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 CBS 의뢰

*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자료: 리얼미터

국인 10명 중 7명 가량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5일 CBS 의뢰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유씨의 입국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 아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층을 앞둔 상황에서 유씨의 입국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리얼미터

5월 동일 주제로 조사했던 때(반대 66.2%·찬성 24.8%)보다 거부감이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입국 불허' 응답은 남성, 19-29세와 30대, 광주·전라, 대구·경북, 보수층, 진보층, 정의당 지지층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입국 불허 의견이 75.0%, 입국허가 의견은 21.3%였다. 여성은 불허 62.7%, 허용 25.3%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연령대는 불허가 80.0%, 허가가 11.8%로 불허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71.2%·24.9%) ▲50대(66.0%·26.4%) ▲60세 이상(65.2%·23.5%) ▲40대(64.6%·28.6%) 순이었다.

지역 중에서는 광주·전라(불허 73.6%·허용 8.9%), 대구·경북(71.9%·21.6%)이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68.1%·27.4%) ▲경기·인천(68.1%·26.4%) ▲부산·울산·경남(68.1%·22.8%) ▲서울(65.9%·25.8%) 등이 뒤따랐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은 불허 71.6%, 허용 26.6%와 진보층 각각 71.3%·21.3% 중도층 68.4%·23.2%였다.

또 정당지지층에선 정의당 지지층이 불허 81.0%, 허용 17.3%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지지층은 불허 69.9%, 허용 21% 한국당 지지층 67.6%, 무당층 67.4%·26.6%에서도 60%가 넘는 비율로 입국 불허 의견을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78명 중 501명이 응답해 5.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법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가수 유승준은 누구?

1997년 데뷔 후 톱가수 떠올라... '바른 청년' 이미지
2002년 입대 앞두고 한국 국적 포기 미국행 여론 못매
출입국관리법따라 입국 금지...2015년 복귀 시도 소송



11일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43·대로 낸 사중(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유)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중(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열린다. 17년 만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로도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으로 가면서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전애수차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컸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13년 만인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불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냉랭했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동시에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시도했다. 11년 만인 작년 11월 새 앨범 '히나타 데이'를 발매하려 했으나,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유통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올해 1월 앨범 발매를 다시 시도, 온라인에 음원이 공개됐다. 2007년 '리버스(Rebirth) 오브 YSI' 이후 내놓은 앨범이었다. 이 음반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유승준은 신곡에서 지난날을 되돌려,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한국 복귀를 시도하는 이유에 관해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스